

Kim, Jong-Bok. Constraints on the Foundation of Korean and English Resultative Constructions. *NELS*, 29: 137–151, 1999.

frozenfire

2009년 9월 25일 금요일 날씨 맑음

1 소개

결과구(resultative phrase)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로 일어난 논항의 상태를 기술한다.

1.0.1 문제 제기: 영어 결과구의 출현 환경

타동사	비대격동사	비능격동사
가능(1a)	가능(1b)	불가능(1c)

- (1) a.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b. The river froze solid.
 c. *He shouted hoarse.

하지만 비능격동사가 결과구와 함께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특정 NP를 추가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2) a. He shouted *himself* hoarse. (fake reflexive)
 b. He cried *his eyes* out. (similar NP)
 c. He ran *the pavement* thin.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1.0.2 두 가지 기존 이론: ATR과 DOR

ATR(Affected Theme Restriction) (Goldberg 1995)

- 결과구는 의미역이 대상(theme)인 논항의 술어만 될 수 있다.
- 문제점: (2)에서 직접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NP들은 각 문장의 동사에서 의미역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일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았다면 ‘*He ran the pavement.’ 같은 문장도 가능해야 한다.

DOR(Direct Object Restriction) (Simpson 1983, Levin and Rappaport 1995)

- 목적어만이 결과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 비대격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DOR은 표층구조와 심층구조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비대격 가설에 따르면 비대격동사의 표면형에서의 주어는 원래 목적어로서 기저생성되었기 때문에, 결과구의 주어가 될 수 있다.¹
 - (2)의 문장들이 문법적인 이유: 동사 뒤에 나오는 NP가 의미역과 상관없이 모두 목적어이다.
 - (3)의 문장들이 비문법적인 이유: 동사 뒤에 나오는 NP들이 직접목적어가 아니다.
- (3) a. *The lake froze *the fish* dead. (목적어가 아니다.)
 b. *The snow melted *the road* slushy. (목적어가 아니다.)
 c. *Fred cooked on *the stove* black.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d. *John loaded the hay into *the wagon* full. (전치사의 목적어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결과 표현을 설명하는 데는 DOR이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어떨까?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어순에 유연성이 있으므로, DOR과 같은 통사적 기반의 설명을 시험해 보기 좋다.

1.0.3 ATR과 DOR의 대안

HPSG(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핵어중심구구조문법)의 틀 내에서 제약을 기반으로 접근해 보자.

2 한국어 결과 표현의 구조

2.1 결과 표현 유형

2.1.1 타동사

결과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1: 전체 문장의 직접목적어

- (4) 그는 쇠를 평평하게 쳤다.

결과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 2: 결과 사건을 기술하는 내포절의 주어 영어에는 없는 유형이다.

- (5) a. 그는 마리를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b. 그는 노래를 [목이 쉬게] 불렀다.

위 설명에 따르면 내포절의 주어의 술어 '마르게'를 결과구로 본 것인데, '침이 마르게' 전체를 결과구로 볼 수는 없을까?

¹앞으로 산세리프 글꼴로 적은 부분은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또 흔적이나 지표, PRO 등의 표시는 모두 원래 논문에 없는 것이고 발표자가 임의로 추가하였다.

2.1.2 수동태/비대격동사

영어와 같다.

- (6) 탁자가 깨끗하게 닦였다.

2.1.3 비능격동사

NP 삽입을 통해 비문법성을 해결한다는 점은 영어와 같다. 하지만 영어와는 달리, 삽입된 NP는 주절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내포문의 주어가 된다. 또 삽입된 NP는 주절의 주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이어야 하고, 수의적으로 나오는 지정어(specifier)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대상을 지시해야 한다.

- (7) a. *그는 아프게 기침했다.
b. *그는 젓게 울었다.
- (8) a. g_i 는 [$(g_i/*j$ 의) 목이 아프게] 기침했다.
? 그는 그의 목을 아프게 기침했다.
b. g_i 는 [$(g_i/*j$ 의) 손수건이 젓게] 울었다.
? 그는 손수건을 젓게 울었다.

2.2 한국어 결과 표현 구조에 대한 일반화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논점

한국어는 타동사나 비능격 동사에서 결과구가 주절 술어의 목적어 대신 독립된 결과사건절의 주어에 대한 술어가 될 수 있다.

2.2.1 논점 1: 비능격동사도 결과구와 동시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어에서는 결과 표현의 유형들이 유연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혹시,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동사들이 결과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특히 비능격동사도 결과구와 동시에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Kim & Maling (1986)은 (7)의 비문법성의 원인이 기침하는 행위와 아프다는 결과 상태 사이에 화용적 연결이 없다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9)와 같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화용적 연결이 있는 경우에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9) *존이 피곤하게 울었다.

따라서 비능격 결과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화용론보다는 어휘의미론으로 설명해야 한다. 즉, delimited lower bound가 있는 결과구는 비능격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 (10) 존이 넘어지게 달렸다.

2.2.2 논점 2: DOR이 한국어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결과구가 독립절의 주어의 술어가 될 때 주어가 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구는 내포절의 주어의 술어가 된다. (11)에서처럼 비대격 동사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11) ?호수가 고기들이 죽게 얼었다.

따라서 철저하게 통사적인 DOR 제약은 한국어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2.3 논점 3: ATR이 한국어에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결과구는 (12b)에서처럼 처소(location) 논항의 술어가 될 수도 있다. (12a)에서는 행동주(agent)의 술어가 될 수도 있고 대상(theme)의 술어가 될 수도 있다.

- (12) a. 존이 말을 지치게 달렸다. (중의적)
 b. 그는 [발에 물집이 생기게] 걸었다.

3 결과 표현 구조의 형성

3.1 통사론과 의미론 사이의 불일치

3.1.1 인상동사:통제동사=비능격동사:타동사 (Wechsler 1997)

통제동사와 타동사

- 목적어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인상동사와 비능격동사

- 목적어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
- 결과구를 포함하는 절 전체가 동사의 논항이 된다.

- (13) 인상동사
 a. She_i seems t_i to have lost her keys.
 b. The joggers believed them_i t_i to have lost her keys.

- (14) 통제동사
 a. John_i tried PRO_i to be quiet.
 b. John persuaded the kids_i PRO_i to be quiet.

따라서 타동사 결과 표현과 비능격동사 결과 표현의 구분은 통제 결과 표현과 인상 결과 표현의 구분으로 환언할 수 있다.

- (15) 통제 결과 표현
 a.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b. The water_i froze PRO_i solid.
 c. John_i jumped PRO_i out of the car.

- (16) 인상 결과 표현
 a. The joggers ran t_i their Nikes_i threadbare.
 b. The speaker_i was laughed t_i off the stage.

3.2 영어의 결과 표현 구조의 제약

결과 표현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될까? 결과 표현이 비결과 표현의 논항 구조를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어휘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7) 영어의 결과 표현 형성 어휘 규칙

$$\left[\begin{array}{l} \text{nonresultative} \\ \text{HEAD } verb \\ \text{COMPS } \langle \dots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resultative} \\ \text{HEAD } verb \\ \text{COMPS } \langle \dots, \mathbf{XP}[\mathbf{SUBJ}\langle \mathbf{NP} \rangle] \rangle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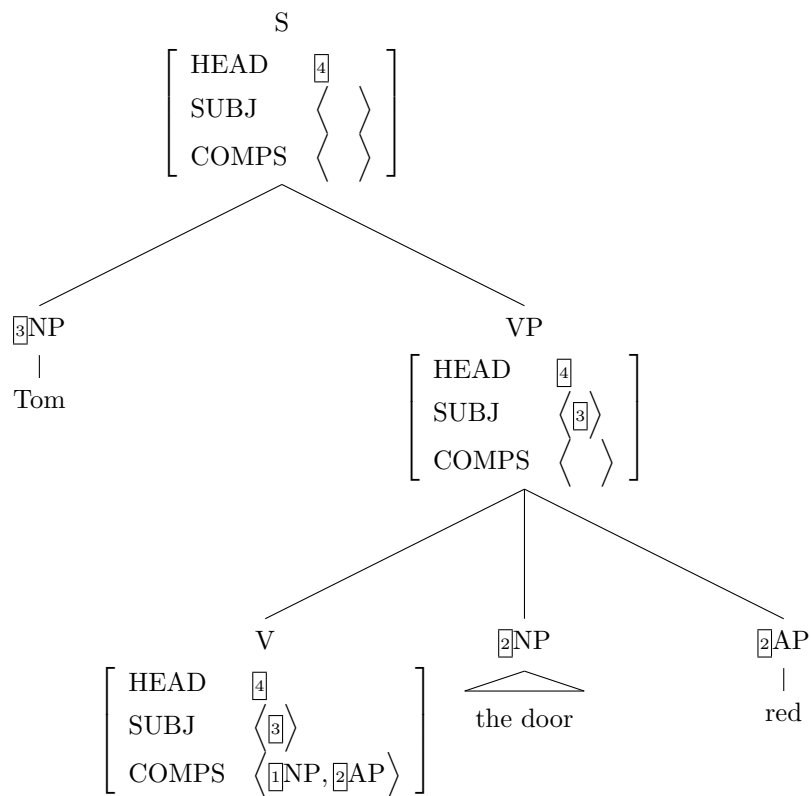
영어에서는 $\mathbf{XP}[\mathbf{SUBJ}\langle \mathbf{NP} \rangle]$ 에서 $\langle \rangle$ 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 $\langle \rangle$ 는 포화가 필요한 결합가를 표시하는 것 같다.

3.2.1 타동사 결과 표현의 형성

- (18) a. John painted the door.
b. John painted the door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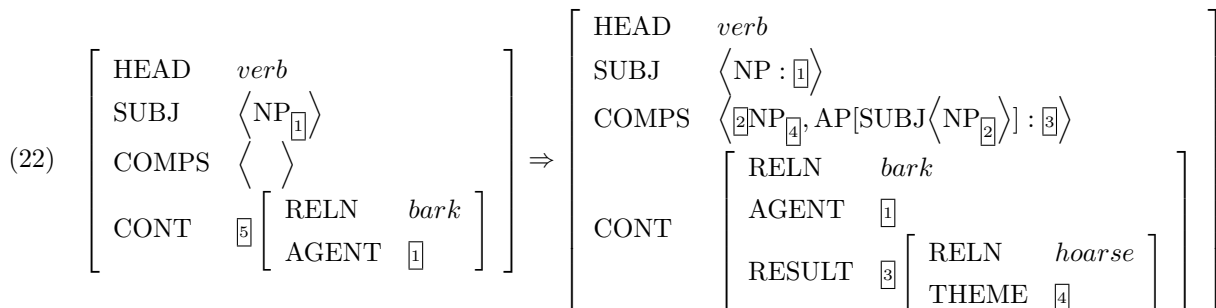
$$(19) \left[\begin{array}{l} \text{HEAD } verb \\ \text{SUBJ } \langle \mathbf{NP}_1 \rangle \\ \text{COMPS } \langle \mathbf{NP}_2 \rangle \\ \text{CONT } \left[\begin{array}{l} \text{RELN } paint \\ \text{AGENT } 1 \\ \text{PATIENT }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 verb \\ \text{SUBJ } \langle \mathbf{NP}_1 \rangle \\ \text{COMPS } \langle \mathbf{NP}_2, \mathbf{AP}[\mathbf{SUBJ}\langle \mathbf{NP}_2 \rangle] : 3 \rangle \\ \text{CONT } \left[\begin{array}{l} \text{RELN } paint \\ \text{AGENT } 1 \\ \text{THEME } 2 \\ \text{RESULT } \left[\begin{array}{l} \text{RELN } red \\ \text{THEME }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20)



3.2.2 비능격 결과 표현의 형성

- (21) a. The dog barked.
 b. The dog barked itself hoarse.



보어(COMPS)에 결과구 AP뿐만 아니라 NP까지 추가된 이유: 인상 원리

- (23) 인상 원리(Raising Principle): 동사의 결합가(VALENCE) 자질에 $XP[\text{SUBJ} \langle [1] NP \rangle]$ 가 있고 국부 통제자(local controller)가 없을 경우, COMPS 값에 $[1] NP$ 를 추가한다.

그래서 '*The dog_i barked t_i hoarse'는 비문이다.

3.2.3 비대격 결과 표현의 형성

- (24) a. The water froze.
 b. The water froze solid.

$$(25)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SUBJ} \quad \langle \text{NP}_{[1]} \rangle \\ \text{COMPS} \quad \langle \rangle \\ \text{CON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freeze} \\ \text{THEME} \quad [1]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SUBJ} \quad \langle \text{NP}_{[1]} \rangle \\ \text{COMPS} \quad \langle \text{AP}[\text{SUBJ} \langle \text{NP}_{[2]} \rangle] : [3] \rangle \\ \text{CON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freeze} \\ \text{THEME} \quad [1] \\ \text{RESUL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solid} \\ \text{THEME} \quad [1]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25)에서는 술어 'solid'의 주어 'the water'가 동사 'freeze'의 의미적 논항이므로 인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2.4 영어의 결과 표현 구조 형성은 인상동사와 통제동사에 대한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 한국어 결과 표현 구조에 대한 제약

한국어 결과 표현 구조의 두 가지 부류

- 독립적인 결과 사건절이 나오는 경우 (XP=S)
-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구가 나오는 경우 (XP=VP/AP)

(26) 한국어 결과 표현 형성 어휘 규칙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COMPS} \quad \langle \dots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COMPS} \quad \langle \dots, \text{XP} \rangle \end{array} \right]$$

영어와 다른점: SUBJ에 명시된 것이 없다. 즉, 주어 값이 포화되지 않아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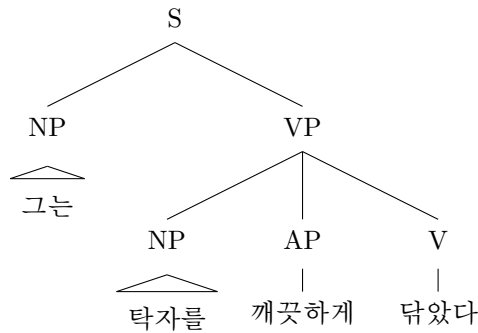
- 주어 값이 포화된 경우: XP=S ⇒ 영어와는 달리 문장도 결과를 표현할 수 있다.
- 주어 값이 포화되지 않은 경우: XP=VP/AP

3.3.1 타동사

- (27) a. 그는 탁자를 닦았다.
b. 그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28)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SUBJ} \quad \langle \text{NP}_{[1]} \rangle \\ \text{COMPS} \quad \langle \text{NP}_{[2]} \rangle \\ \text{CON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wipe} \\ \text{AGENT} \quad [1] \\ \text{PATIENT} \quad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quad \textit{verb} \\ \text{SUBJ} \quad \langle \text{NP}_{[1]} \rangle \\ \text{COMPS} \quad \langle \text{NP}_{[2]}, \text{AP}[\text{SUBJ} \langle \text{NP}_{[2]} \rangle] : [3] \rangle \\ \text{CON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wipe} \\ \text{AGENT} \quad [1] \\ \text{THEME} \quad [2] \\ \text{RESUL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quad \textit{clean} \\ \text{THEME} \quad [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29) ‘그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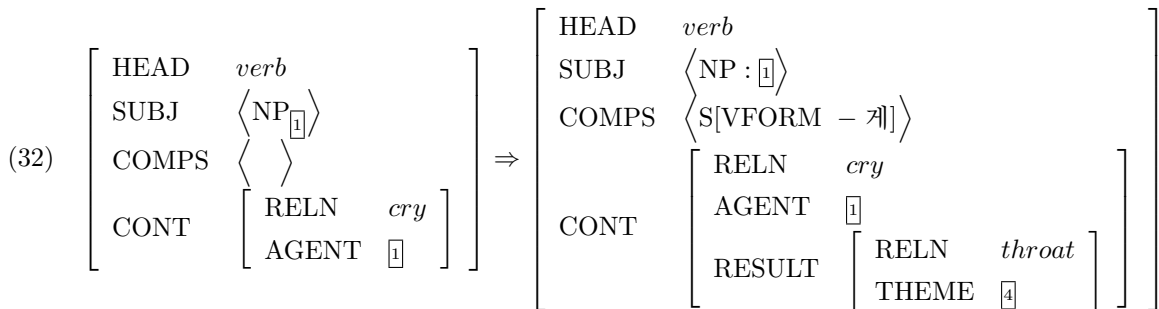
(28)에서 결과구에는 숨겨진 주어가 있으므로 국부 통제자가 필요하다. 이 통제자는 주절 술어의 어휘 의미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닦았다’의 의미에 따라, ‘깨끗하게’의 통제자는 ‘닦았다’의 목적어가 된다.

반면 ‘달렸다’, ‘잡았다’ 등의 동사의 어휘 의미에는 의미 제약이 없고, 주어나 서술어 중 어느 것이라도 결과구의 통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0)의 문장들은 중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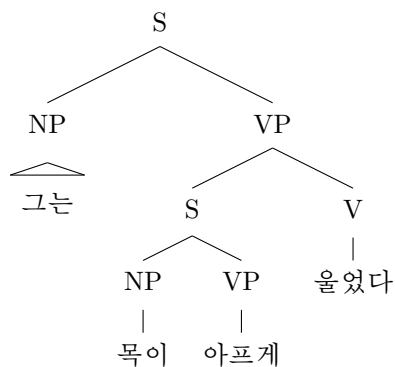
- (30) a. 존이 말을 지치게 달렸다. (중의적)
 ⇒ 말이 지치는 경우와 존이 지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 b. 존이 마리의 손을 아프게 잡았다. (중의적)
 ⇒ 마리의 손이 아픈 경우와 존이 아픈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3.3.2 비능격동사

- (31) a. 그는 울었다.
 b. 그는 [목이 아프게] 울었다.



(33) ‘그는 목이 아프게 울었다.’



(33)에서 ‘아프게’는 포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 술어구가 포화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될 수 있을 경우, 결과구는 상적 제한을 받는다. (34)가 정문인 이유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까무러치게’가 받는 상적 제한은 무엇일까요?

(34) 존이 까무러치게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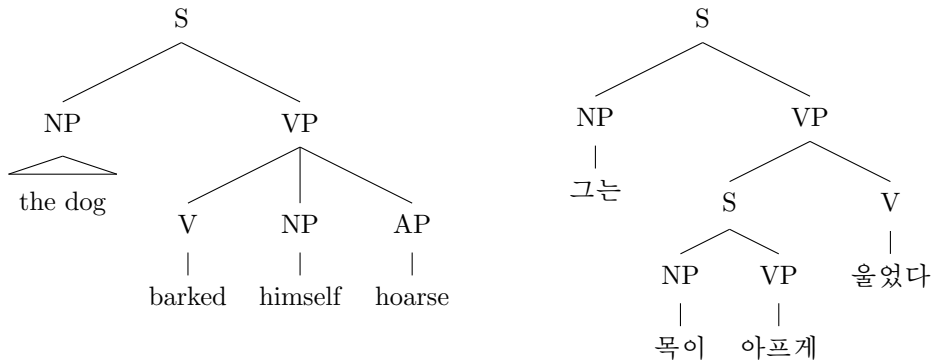
‘*John shouted fainted.’

3.3.3 여기서 제시한 한국어 어휘 규칙의 특징

1. 자동사를 비능격과 비대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2. 인상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

4 영어와 한국어의 결과 표현 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 비능격 결과 표현의 구조가 영어에서는 삼분지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분지이다.



결과구의 주어가 영어에서는 전체 문장의 목적어, 한국어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되기 때문이다.

- 한국어의 결과구는 대상의 술어뿐만 아니라 행동주나 처소의 술어도 될 수 있다(⇒ATR로 설명 불가능). 즉, 직접목적어 이외의 성분인 주어나 보어의 술어가 될 수 있다(⇒DOR로 설명 불가능).
- 영어와 한국어 모두, 결과 표현 구조를 형성할 때 단순한 어휘 규칙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한국어에서는 결과 XP의 포화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4.0.1 영어에서는 왜 결과구의 주어가 나타나야 하는가?

영어에서는 不定 VP 이외의 범주에 속하는 서술적 보충어는 국부적으로 드러난 주어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35) 서술적 보충어가 부정VP이므로 주어가 드러나지 않았다.

- a. PRO_{arb} To err is human.
- b. The counselor recommended PRO_{arb} living together before getting married.

(36) a. * John considers [PRO fond of herself].
 b. * The director kept [PRO on the stage].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 (37) a. 연출가가 그것을 무대 위에 두었어.
b. 연출가가 pro 무대 위에 두었어.

적절한 맥락에서는 (37b)처럼 두 번째 술어 ‘무대 위에’의 술어가 반드시 표현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비능격동사에서 결과구의 주어가 꼭 실현되지는 않아도 된다.

4.0.2 비능격 동사와 함께 나오는 결과구의 주어가 영어의 경우 주절 술어의 목적어로 실현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내포절의 주어로 실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어에서는 CP를 만드는 일반적인 양식이 인상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는 영어의 ECM에 상응하는 구조가 없는 것 같다. 한국어에서 VP 보어가 한정적(finite)이면 접미사 ‘-고’가 핵이 된다.

- (38) 존은 리가/를 바보였다고 믿는다.

한국어의 경우 이 문장에서 VP의 주어가 주격/대격이 모두 가능한 것은 VP의 한정성 때문이다. ‘존은 리가 바보였음을 믿는다’처럼 부정VP가 쓰이면 주격만 가능하다.

게다가 VP의 숨은 주어의 통제자가 꼭 내포절의 주어일 필요도 없다. (39)의 통제자는 처소 구이다. (Hong 1990)

- (39) 존은 로스앤젤레스를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산다고] 생각했다.

Wh-구 역시 한국어 ECM 구조가 영어와는 다를 것을 보여준다. (Lee and Wechsler 1995)

- (40) a. 존은 누구를 현명하다고 믿니?
b. *존은 누구를 현명하냐고 믿었다.

(40)에서 wh-구가 대격인 이유는, 실제로는 wh-구에 격을 부여하지 않는 상위 술어 ‘믿니/믿었다’ 때문이다.

대격NP가 기저생성되는 다른 예 (Song 1994)

- (41) a. 우리가 존이 산다고 생각한 집에 불이 났다.
b. *우리가 존을 산다고 생각한 집에 불이 났다.

한국어에서는 결과구의 주어가 목적어로 실현되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 대격은 처음부터 결과구보다 상위에 있는 술어에 의해 선택되기 때문이다. 반면 영어에서 결과구의 주어는 격을 받아서 대격으로 실현된다.

5 결론

DOR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어의 특징:

1. 결과 표현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2. 결과구가 대상, 경험주, 처소 논항의 술어로도 쓰인다.

이 논문에서는 비대격과 비능격,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Wechsler(1996, 1997)에 따라 인상 동사와 통제 동사를 구분하였다. 간단한 어휘 규칙과 보편적 제약들로 영어와 한국어의 결과 구조를 직접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분석으로 영어 결과 표현의 엄격한 통사 제약과 한국어의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모두 예측할 수 있다. 두 언어의 결과 표현 구조의 차이점은 어휘 규칙에서 자질 명세 문제로 환언된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비능격과 비대격을 통사적, 어휘적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비능격 구조에서 나타나는 통사-의미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